

痰核에 관한 文獻的 研究

朴 恒 基 *

I. 緒 論

濕痰이 凝聚하여 大小의 塊核을 形成한 것으로 3, 13, 16) 紅色을 띄지 않고, 痛症도 없고, 膿도 생기지 않으며, 손으로 밀면 움직이는데 10), 頸項部位에 많이 생기며 手臂肩背에도 생긴다. 2)

大豆, 或은 橡實 或은 癩癧 或은 鷄卵같은 痰核이 胸背, 頭項, 腋脇, 腰腿, 手足等 全身에 散在하여 皮膚內側, 筋脈外面에 形成되어 或軟, 或硬하며 或痛, 或無痛하고 손으로 눌러도 血潮가 나타나지 않으며, 或微 紅色을 띄기도 하나, 淡薄하여 無熱하며, 或 堅硬하면서도 刀剖破腫하면 膿이 없으며, 或은 血液樣 或은 清水 或은 敗肉 或은 敗絮狀의 肉塊가 排出된다. 11)

이와 같이 우리 全身에 大小의 核이 生길 때, 癌 또는 다른 炎症에 依한 것이 아닌가 하고, 細胞組織檢査 等を 하게 되나, 筆者는 漢方에서 痰核인 경우도 상당히 있어서 痰核에 관한 東洋醫學의 文獻을 考察하여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痰核에 관한 文獻資料

痰核者, 人身上下結核 不散也. 或 發腫塊者, 是痰塊也, 大凡治痰塊, 流注, 結核, 俱與濕痰流注, 同治法, 二陳湯加味 2)

竹瀝化痰丸, 上可取上之溼痰, 下可取腸胃之積痰, 一名 導痰小胃丹 1) 22)

濕痰流注 一身作核下散, 或痛, 或 不痛按之無血潮雖 或微 紅淡薄不熱堅如石破之無膿 或有薄

血 或清水又有壞肉如破絮 或 如癩癧如鷄卵可移動軟滑不硬.

- 南星草烏等 末薑汁調付核 消.
- 生南星 商陸根合搗令爛付 或有塊如種毒多在皮裏膜外
- 咽喉痰結作寒熱通順散, 加味
- 生山藥一塊 草麻子三個並去皮研勻貼之 竹瀝達痰丸. 能運痰從大便出不損元氣妙 [丹溪] 日痰在四肢非竹瀝不開比藥是也 1)

開氣消痰湯. 治膈中膈腕至咽門窄狹如線疼痛及手足俱有核如胡桃者 1, 11, 13, 18)

竹瀝達痰丸; 能運痰於大腸從大便出不損元氣妙 3, 10, 19)

小胃丹, 治胃中之積痰藥.

身中結核 不紅不腫 或頸項結核 似癭非癭 10)

凡人身上中下 有塊者 多是 問其平日好食 何物吐下後 方用藥 許學士 用蒼朮 治痰成窠囊 一邊行極妙痰 狹瘀血 遂成窠囊. 噫氣 吞酸 此食鬱 有熱 火氣上動 以黃芩爲君 南星 半夏爲臣 橘紅爲使 熱多加青黛, 痰在脇下 非白芥子不能達, 痰在皮裏膜外 非薑汁竹瀝不可導達, 痰在四肢 非竹瀝不開, 痰結核 咽喉中燥 不能出入 用化痰藥加鹹藥 軟堅之味 瓜薑仁 杏仁 海石 桔梗 連翹 少佐朴硝以薑汁 密和丸 噉服之 海粉 郎 海石 熱痰能降 濕痰能燥, 結痰 能軟 頑痰 能消 可入丸子末 子不可入煎藥, 枳實 瀉痰 能衝牆壁, 小胃丹治 膈上痰熱 風痰 濕痰 肩膊諸痛 能損胃氣 食積痰實者用之不宜多 14)

成核結聚項間, 痰核丸, 痰核酒.

* 朴恒基韓醫院 院長

痰核，半夏連翹，貝，桔，枳，星，夏枯草⁴⁾

頸項生核，不紅不痛 不作膿，推之則動，乃痰聚不散也，不可誤用，癰癧藥治宜二陳湯加味。

如耳後與項間各有一塊者含化丹

臂核或作微痛。以內無膿，故外雖腫不紅或生背膊皆然¹⁷⁾

凡遍身有塊 多是痰注。但在上體多兼風熱，在下體多兼溼熱，宜加味小胃丹，竹瀝達痰丸，量體虛實，服之通用海帶丸^{10,16)}

人身上中下有塊，如腫毒多在皮膚膜外。此濕痰流注作核不散南星商陸等分末 醋調塗之。

開消飲，桔梗，香附子，白僵蠶炒各一錢，陳皮，黃芩，枳殼各七分連翹，白芥子，前胡，半夏，只實，荆芥，檳榔，射干，威靈仙，柴胡，大黃，黃連，各五分 木香，甘草，各三分 薑三片，亦治胸中胃脘至咽門窄狹如線⁹⁾。

治痰核，行血導痰湯，當歸頭 木香，帶皮苓(從)炒香附，陳皮，薑半夏，貝母，煨枳實，檳榔，羌活，獨活，桔梗，荆芥穗，僵蠶，銀柴胡⁶⁾。

凡人身上中下有塊是痰問其平日好食物吐下後方用藥^{14,17)}。

痰之爲物隨氣升降無處不到……

痰在脇下 非白芥子不能達。痰在皮裏膜外 以薑汁竹瀝導之。痰在四肢非竹瀝不能開 二陳湯善治一身之痰如在下加下引藥在上加上引藥。小胃丹能逐貫胃痰積然不宜多服。竹瀝達痰丸 能運痰從大便出不損元氣神妙⁶⁾。

人身有塊上中下多在皮裡膜外，宜 ○二陳湯 加大黃，連翹，柴胡，桔梗，白芥子，黃連薑炒 竹瀝而吐下，痰注於胸背頭項掖腰腿手足聚核硬或痛不痛按之無膿血 或微紅不熱硬如石破之無膿或薄血 或清水 或紫汁 或塊肉如敗絮如癰癧在皮肉之間如鷄卵可移動 或寒熱。○返魂湯如南星半夏各一錢³⁾。

遍身痰塊及四肢宜 竹瀝達痰丸。

痰核在胸中胃脘至咽門窄狹如線疼痛及手足俱有核如胡桃者開氣消痰湯¹²⁾。

人身上中下有塊如腫毒多在皮裏膜外此因溼痰流注作核不散問其平日好食物用藥吐下後方用消痰散核之藥。二陳湯加味。

痰飲流注於胸背頭項腋腰腿手足聚結腫硬 或痛或不痛按之無血潮雖 或有微紅亦淡薄不熱堅如石破之無膿 或有薄血 或清水 或如紫汁又有壞肉如敗絮或如癰癧在皮肉之間如鷄卵可移動軟活不硬惟覺咽喉痰結作寒作熱宜返魂湯(方見癰疽)加南星半夏³⁾。

○遍身有塊多是痰注宜加味小胃丹，竹瀝達痰丸^{10,16)} 痰塊宜開氣消痰湯又天南星，草烏等分爲末薑汁調如膏敷核上立消³⁾。

治痰核，商陸根生南星 合搗令爛塗敷立消。

渾身有腫塊 或骨體串痛都是溼痰流注經絡也，通用二陳湯加減²⁾。

加味小胃丹，治風痰痞積眩暈喉痺癰瘰 不語腹中痞塊等 證神効^{10,18)}

獨形而小核者爲結核(綱目) ○結核者火氣熱甚則鬱結堅硬如果中核也 不須潰破但熱氣散則自消(河間)

○結核在一身如腫毒在皮裏膜外多是濕痰流注作核不散問其平日好食物吐下後用藥散核(丹心)痰癰推動滑軟(入門)

○結核在臂，二陳湯加味^{7,14)}。

○遍身有核多是痰注宜，加味小胃丹，竹瀝達痰丸通用海帶丸，含化丹¹⁰⁾。

○結核宜用消風化痰湯，開氣消痰湯，內托白飲散，消解散，消核丸¹⁸⁾。

○海帶丸，治痰核癰氣久不消，海帶，青皮，貝母，陳皮，各等分右爲末密丸彈子大食後嚙化一丸(綱目)。

○含化丹，治耳項結核，酒蒸大黃，白僵蠶，青黛，牛胆南星各等分右爲末蜜丸彈子大食後嚙化一丸¹⁰⁾。

○消風化痰湯，治結核因風痰鬱結²⁾。

○開氣消痰湯，治胸中胃院至咽門窄狹如線疼痛及手足俱有核如胡桃者⁷⁾。

○內托白蠶散，治腋下痰核因酒怒氣發腫痛潰膿久不差²⁾。

○消解散，治咽喉結核腫痛頸項不得回轉兩腋下或有塊如石硬²⁾。

○消核丸（沈氏尊生書方）治結核，治頸項耳後結核三五歲成簇不紅不腫不作膿者^{2,23)}。

○又方，治痰核疔瘡，商陸根生 南星合搗爛塗之立消。

○又方，南星，草烏等分爲末薑汁調塗立消^{2,5)}。

○又方，大蜘蛛 研爛好酒浸去滓臨臥溫服甚効（綱目）¹⁸⁾ 痰結核在咽喉咯唾不出化痰藥中 加鹹藥 以莢其堅瓜萸仁杏仁海石，朴硝，海藻佐以薑汁，小胃丹治實痰積飲 必用之藥不過二三服而已虛者不可用之²¹⁾。

病原痰飲者由氣脈閉塞津液不通水飲停在胸膈結而成痰²⁵⁾。

熱痰脈洪面赤煩熱心痛口乾唇燥時多喜笑其痰堅而成塊，小黃丸，天黃湯²²⁾。

○熱痰者謂飲水漿結積所生也²⁶⁾。

凡人身中有結核，不痛不紅，不作膿者 背痰注也^{14,17)}

痰核者 濕痰流聚成塊，不紅不痛，不作膿 推動軟滑，多生頸項 宜專消痰核仙方，海帶丸，消核丸 亦有手牛臂肩者，雖覺痛但腫不紅 宜二陳湯加味⁷⁾ 亦有胸中胃院至 咽門窄狹如線疼痛 及手足俱有核如胡桃者宜，開氣消痰湯

亦有咽喉結核腫痛，頸項不得回轉，兩腋下塊如石硬者 宜消解散

亦有風痰鬱結而成核宜消風化痰湯

亦有酒怒 氣發腫痛潰膿，痰核生於腋下，久不能癒者 宜內托白蠶散

亦有生於耳後連項下三五成簇，不紅，不腫，不作膿者 宜含化丹，

亦有項後 少陽經中疔瘡，亦硬腫痛者宜 山藥膏，亦有痰核紅腫寒熱，狀如瘰癧者 宜 硃火煨爲末百果肉同搗貼，

亦有沈後生痰正則爲腦側則痺者 宜輕虛白浮石 燒存性 入輕粉少許，研，麻油調塗，勿令手按，即漲，或加焙黃牛糞尤妙^{7,15)}。

結核即同果核形，皮裹膜外結癭成，或由風火氣鬱致，或怒火濕痰生 此證生於皮裏膜外，結如果，核堅而不痛，由風火氣鬱，結聚而生，初發令寒熱往來，有表證者 荊防敗毒散 解之表既解即連翹消毒飲，若濕痰氣鬱凝結者 宜行氣化痰以五香流氣飲 千金指迷丸²⁴⁾。

Table I :

No.	原因別分類	記載書名數
1	濕痰流注 ^{1,2,3,4,5,6,7,8,9,10,11,12,14,15,16,17,18,19,20,21,24)}	21
2	風痰鬱結 ^{2,7,18)}	3
3	酒怒氣 ^{2,7,18)}	3
4	風火氣鬱 ²⁴⁾	1

Table II :

No.	證狀分類	書名回數
1	核不散痛或不痛 無血潮，微紅 淡薄 不熱，堅如石 破之無膿或清水如瘰癧如鷄卵可移動軟滑不硬 ^{1,3,5,7,10,11,12,15,16,18)}	

No.	證狀分類	書名回數
2	痰(結)核 2,4,6,8,10,12,14,17,18,21)	10
3	痰塊 3,5,8,9,12,14,15,16,17,18,20,21)	12
4	如線疼痛及如胡桃 7,12,19)	3
5	窠囊 14,21)	2
6	果核不痛 24)	1
7	塊如腫 2,5,13)	3
8	豆如榛如貫珠 6)	1
9	不癢作麻木 17)	1
10	痰癩 10,18)	2

※ 50餘種의 文獻을 資料로 取扱하였으나 文獻上 나타나지 않은것이 많아서 實際 22種의 文獻에서 原因 證狀 處方을 拔萃하여 보았다.

Table III :

No.	處方名(內服藥)	書籍記載數	備考
1	加味二陳湯 2,3,5,7,8,10,12,14,15,16,17,18,21)	13	
2	加味小胃丹 3,5,8,10,14,15,16,18)	9	
3	竹瀝達痰丸 1,2,3,5,7,8,10,11,12,13,15,16,18,19)	14	
4	開氣消痰湯 1,2,3,5,7,11,12,13,15,18,19)	11	
5	返魂湯 1,3,5,11,12,13,18)	7	
6	海帶丸 7,10,15,16,18)	5	
7	含化丹 7,10,15,16,17)	6	
8	消風化痰湯 2,7,15,18)	4	
9	內托白斂散 2,7,18)	3	
10	消解散 2,7,18)	3	
11	痰核丸 7)	1	
12	小黃丸 20)	1	
13	開消飲 8)	1	

No.	處方名(內服藥)	書籍記載數	備考
14	消核丸 2,4,7,15,18)	5	
15	痰核酒 4)	1	
16	行血導痰湯 6)	1	
17	竹瀝化痰丸 2)	1	
18	消毒散 2)	1	
19	內消散 2)	1	
20	化鳳膏 2)	1	
21	潤下丸 8,21)	2	
22	青礞石丸 8)	1	
23	大蜘蛛研爛溫服 18)	1	
24	天黃湯 20)	1	
25	消痰湯 7)	1	
26	消核散 7)	1	
27	五行流氣飲 22)	1	
28	千金指迷丸 22)	1	
29	荆防敗毒散 22)	1	
30	連翹消毒飲 22)	1	

Table IV :

No.	處方名(外用藥)	書籍記載數	備考
1	南星草烏末 1,11,18)	3	
2	生南星商陸根搗付 1,5,11,18)	4	
3	山藥草麻子研勻 1,7,11,15)	4	
4	白浮石方 7,15)	2	
5	石灰煨方 7,15)	2	

III. 總括 및 考按

濕痰이 氣의 循環을 障礙하여 18,22,25) 凝聚되어서 皮膚內側筋膜外面에서 大小의 果核과 같은 痰核이 發生하여지며 氣가 鬱滯되고 痰이 熱할때는 難治함을 알 수 있고 14,17) 飲酒와 怒氣로 腫痛과 潰瘍이 있을 수 있다고 15) 하였다.

河間은 火氣가 熱甚한즉, 果核과 같이 堅硬해지고 熱氣가 없어지면 스스로 消滅한다고 하였다.^{18, 22)}

大體로 痰核이 上體에 생길 때에는 風熱을 兼한 경우가 많으며 下體에 생길 때에는 濕熱을 兼한 경우가 많으므로²⁾ 分別하여 治療해야 한다.

丹溪는 痰이 脊下에 있을 때에는 白芥子가 아니면 達할 수 없고 皮裏膜外에 있으면 薑汁竹瀝이 아니면 導達할 수 없으며, 四肢에 있으면, 竹瀝이 아니면 不開하며, 咽喉中에 있어서 燥하여 不能出入하면 化痰藥을 쓰는데 鹹藥軟堅之味로 瓜蒌仁, 杏仁, 海石, 桔梗, 連翹를 加하여 쓴다 하였고.¹⁴⁾

痰核이 頸項이나 手臂肩背에 생길 때에는 加味二陳湯²⁾을 쓰고, 全身에 있을 때에는 加味小胃丹, 竹瀝達痰丸을 쓰나 耳項에 생길 때는 舍化丹, 오랫동안 消滅하지 않을 때는 海帶丸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다.

加味小胃丹은 風痰痞積이나 腹中痞塊等證에 有效하며 竹瀝達痰丸은 痰塊를 元氣가 損傷되지 않게 하면서 排出하는데 쓴다. 發生하는 곳에 따라 腋下에 있으면 內托白蘇散, 咽喉에 있으면 消解散 頸項耳後에 있을 때는 消核丸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다.

開氣消痰湯은 胸中胃脘과 咽門이 狹窄疼痛하는 者와 手足에 結核이 있어 胡桃와 같은 者에 쓴다.^{2, 18)}

다음 所與된 22種의 文獻資料에서 書籍出現回數로 原因, 證狀, 處方을 살펴보면 痰核의 原因으로 濕痰流注가 21回, 風痰鬱結, 嗜酒怒氣가 各 3回이며 風火氣鬱이 1回로 나타나 있고 證狀으로는 痰核이 不散하여 痛或 不痛하기도 하고, 無血潮하며 淡薄不熱하며, 堅如石, 無膿하며, 癰癤같고 鷄卵같으며 可移動하

는 證狀이 10回, 痰塊가 12回, 痰結核이 11回等 順으로 나타나 있다.

處方數는 35種으로 竹瀝達痰丸이 14回로 가장 많고 加味二陳湯이 13回 開氣消痰湯이 11回로 나타났으며, 加味小胃丹이 9回, 返魂湯이 7回, 舍化丹이 6回 海帶丸, 消核丸이 各 5回, 消風化痰湯이 4回, 內托白蘇散, 消解散이 各 3回等 順으로 나타났으며 外用藥으로 南星草烏末方이 3回, 山藥膏와 商陸方이 各各 4回로 나타났다.

그러나 內服藥에 있어서 開氣消痰湯과 竹瀝達痰丸 및 加味二陳湯이 繁用되어 왔으나 開氣消痰湯(胸中胃脘, 手足)과 竹瀝達痰丸(全身, 痰塊), 加味小胃丹(全身, 腹中痞塊) 舍化丹(耳項), 海帶丸(久時), 內托白蘇散(腋下), 消核丸(頸項耳後) 등의 處方과 證狀의 緣由하는 바를 찾아 使用되고 있음을 認知할 수 있겠다.

IV. 結 論

1) 痰核은 濕痰이 氣의 循環을 障碍하여 凝聚되어서 發生하며 氣가 鬱滯되고 痰이 熱할 때는 難治이다.

2) 痰核의 原因으로는 濕痰流注가 가장 많고 風痰鬱結 嗜酒怒氣, 風化氣鬱 順으로 나타나 있다.

3) 證狀으로는 核이 不散하여 痛, 或 不痛하기도 하고 無血潮하며 淡薄不熱하며, 堅如石, 無膿하며 癰癤같고 鷄卵같으며 可移動하는 證狀과 痰塊痰結核等 順으로 나타나 있다.

4) 內服藥에 있어서 竹瀝達痰丸과 開氣消痰湯, 加味二陳湯이 繁用되어 왔으며, 또한 加味小胃丹, 返魂湯, 舍化丹, 海帶丸, 消核丸 등으로 나타나 있으나 症狀에 따라 그 使用이 緣由되어 있음을 認知할 수 있겠고, 外用藥으로는 南

星草烏末方, 山藥膏 및 商陸方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參 考 文 獻

- 1) 康命吉編：濟衆新編, 서울, 杏林書院, 1965, pp.86~87.
- 2) 龔廷賢：萬病回春, 서울, 杏林書院, 1972, p.36, 112, 116.
- 3) 金定濟：診療要鑑,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74, p.606.
- 4) 林佩琴；類證治裁, 臺北, 族風出版社, 1970, p.122, 124, 126.
- 5) 孟華燮編著：方藥指鍼, 서울, 杏林出版社, 1976, pp.321~322.
- 6) 朴鎭豐：楠挺醫學大詮, 서울, 相一文化社, 1962, p.362.
- 7) 謝 觀：東洋醫學大辭典, 서울, 高文社, 1975, p.541, 881.
- 8) 孫一奎：赤水玄珠,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p.242~244.
- 9) 李麟宰：袖珍經驗神方全, 서울, 醫門社, p.105.
- 10) 李 挺：醫學入門, 臺北, 東方書店, 1960, p.499, 550.
- 11) 黃道淵：醫宗損益, 서울, 醫藥社, 1976, 2:17.
- 12) 李周榮：春鑑錄乾, 서울, 書苑堂, 1976, p.85.
- 13) 周命新：醫門寶鑑, 서울, 三協出版社, 1964, p.95.
- 14) 朱震亨：丹溪心法, 서울, 杏林書院, 1965, pp.96~97.
- 15) 沈金鰲：雜病源流, 서울, 成輔社, 1972, p.705, 708.
- 16) 蔡陸仙：中國醫藥匯海, 서울, 成輔社, 1978, 10:512.
- 17) 丹波元堅編：雜病廣要 p.178, 181.
- 18) 許 浚：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9, p.133.
- 19) 黃道淵：方藥合編, 서울, 杏林書院, 1975, pp.125, 126.
- 20) 李中梓：醫宗必讀, 서울, 書苑堂, 1976, p.340.
- 21) 張介賓：張氏景岳全書, 서울, 杏林書院, 1973, p.414, 416.
- 22) 蔡炳允：漢方外科, 서울, 高文社, 1975, p.254.
- 23) 沈金鰲：沈氏尊生書, 臺北, 自由出版社, 1979, p.541.
- 24) 吳謙外：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卷下, p.1923.
- 25) 王 燾：外臺秘要, 서울, 成輔社, 1975, p.225, 234.
- 26) 巢元方：諸病源候論, 臺北, 自由出版社, 1962, 20:5, 6.